

工業發展을 위한 “準備態勢”*

一公務員 管理者 勞動者 및 大學生의
國家意識과 政府의 經濟政策에 대
한 態度調査 報告一

金 璟 東

I. 理論的 背景

1. 工業發展과 政府

오늘날 貧困이 美德이던 時代는 지나고 生活水準의 向上과 經濟發展을 통한 國家發展은 後進諸國의 主要目標가 되었다. 技術的으로 무엇이 國家發展이며 近代化며 經濟發展인지에 관한 意見의 一致가 반드시 있지는 않다.⁽¹⁾

大體로 一般의인 傾向은 近代化의 核心은 경제발전이요, 경제발전의 主軸은 工業發展이라는 觀念으로 쏠리고 있다. 工業化發展 自體가 반드시 경제발전을 뜻하느냐에 관해서도 異見이 있을 수 있다.⁽²⁾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後進諸國은 工業發展을 통하여 國家發展을 期하려고 努力하고 있다는 것은 現實이다.

本稿에서는 工業發展의 經濟的 意義라든가 政治的 意味를 論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 本研究調査報告는 5 個國共同研究인 “Human Values in Industrial Development”의 一環으로 韓國에서 行해진 事前調査 結果의 一部이다. 이 研究는 Hawaii 大學 East-West Center에서 後援하고 Hawaii 大學 Arthur M. Whitehill, Jr. 교수와 日本東京의 立教大學 武澤信一교수의 指導아래 行해지고 있다. 韓國에서는 筆者가 韓國生產性本部 生產性研究所의 協助아래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大學生과 公務員은 서울女大社會學科 學生들에 의하여 行해진 것임을 밝혀둔다. 이자리를 빌어 韓國生產性本部의 이은복 이사장, 백영훈박사, 최규원간사장 및 이희경學兄에게 두루 감사드리며, 서울女大 社會學科 學生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1) 貧困에서의 脫皮를 비롯하여 疾病, 無知 社會의 不義에서 救濟받아야 發展이라고 보는 見解는 Eugene R. Black, “So Hopeful A Challenge” in Gore Hambidge, (ed) Dynamics of Development (New York: F.A.Praeger, Inc. 1964). pp.3~7 과 同書의 8-10에서 보는 Hugh L. Keenleyside, “Obstacles and Mean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 表明된 바 있고, 또 Ed Weidner도 發展을 “welfare values”로 이해하면서 所得增大 社會保障 教育 보다 나은 生活들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다.

(2) 特히 近代化를 경제발전과 同一視하다시피하고 경제발전을 다시 公업화로 보는 傾向은 Wilbert E. Moore, Social Change.(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3)參照. 工業發展의 諸問題에 관해서는 Murry D. Bryce, Industrial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1960)참조.

우리의 政府가 「工業立國」을 경제성장 내지는 조국근대화의 主要指標로 삼고 있다는 事實을 前提로 하고 이와 같은 國家目標의 達成을 위한 努力에 있어서 國民의 動員(mobilization)을 하려고 할 때 과연 국민쪽에서는 얼마만큼이나 이에 同調 協力할 “精神的인 準備態勢”(readiness)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쪽에 관심이 있다.

經濟發展途上에서 政府가 遂行하는 役割도 社會와 時代에 따라 다르고 政府의 差別的인 干與가 어떤 功過를 나타내는지를 決定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現實은 先後進國을 莫論하고 오늘날의 社會經濟體制는 政府의 直接間接的인 參與를 要求하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나라에서 政府가 경제발전의 정책을 意識的 體系의으로 立案實施하고자 하는 機運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50年代末이었다고 보며 60年代에 와서 비로써 그것이 二次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으로 빛을 보기에 이르렀다.⁽³⁾ 이러한 노력에서 정부는 “指導的 資本主義”(Guided Capitalism)⁽⁴⁾를 主唱하고 나섰으며 主要 基幹產業이나 社會間接資本의 운영이 政府의 統制下에 있고 私企業의 活動에 있어서도 政府의 財政的인 뒷받침이 큰 役割을 하고 있는 形便이다.

그러므로 政府의 경제정책과 工業發展에 있어서의 役割에 대한 國民의 意識과 態度는 重要한 發展의 要因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國民이 정부를 얼마나 信賴하며 얼마나 國家의 主體意識(national ider tity)이 強한기는 社會的 動員의 기본적 전제 조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⁵⁾

2. 工業發展을 위한 “準備態勢”로서의 價値觀

工業發展이라는 經濟的 過程에 있어서 非經濟的 乃至는 經濟外的 要因이 차지하는 位置에 關係해서도 여기서 再強調할 必要가 없을 만큼 많은 論議가 있었다. 결국 工業發展을 遂行하는 主體는 어디까지나 人間이며 人間이 가지는 價値觀과 態度는 그들의 行動을 左右하는 緊要한 基礎가 된다는 結論에 反對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勿論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은 틀림 없다. 어느 한쪽이든 치우치게 되면 그것은 不完全한 立論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3)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는 Charles Wolf, Jr. “Economic Planning in Korea” in KOREAN AFFAIRS, Vol. Ⅲ. No. 2, July 1964 와 W.D. Reeve, The Republic of Korea: A Political and Economic Stud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및 Nam, Duck Woo “Korea’s Experience with Economic Planning” in Repor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Modernization in Asia, (Seoul: Korea University. Asiatic Research Center, 1965) pp. 517—561.

(4) The Economic Planning Board, Summary of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62—66 (Seoul, 1962) p. 28.

(5) Karl. W. Deutsch “Social Mobiliz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V. No. 3. September, 1961. pp. 493—514. S.N. Eisenstadt “Modernization and Conditions of Sustained Growth.” in World Politics, Vol. XVI No. 4. July, 1964. pp. 576—594 및 S.N. Eisenstadt, “Breakdowns of Moderniz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XII No. 4. July, 1964. pp. 345—367 참조.

本稿에서는 이와 같은 均衡을 취하기 위하여 理論的 方法論的 立場을 밝힐 必要를 느끼며 相當한 紙面을 이에 寄與할 생각이다.⁽⁶⁾

理論的인 水準에서 分析的으로 論議한다면 價値觀은 工業發展과 다음과 같은 相互關係에 있는 것으로 본다. 첫째는 工業이 發展하기 위한 하나의 先行條件으로서의 價値觀이다. 發展初期의 文化的 風土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發展이 시작되어 促進되기도 하고 遲延되기도 할 것이다. 둘째로 價値觀은 工業發展過程과 더불어 相互作用하면서 共變하는 變數이다. 끝으로 價値觀은 이런 工業化의 段階에서 結果的으로 새로이 生成하는 要因이 되기도 한다.⁽⁷⁾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어느정도의 工業發展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어떤 기초에서 시작되었던가 하는 문제는 歷史에 속하는 것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이것이 앞으로 發展을 계속 내지 促進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어떤 “精神的인 準備態勢”를 갖추었는가를 探求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價値觀의 기초가 初期에는 여러모로 不利했던 것을 認定하고 外部세력에 의한 變動의 繼起도 인정하면서 이제부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價値觀이 어떤 것이며 그것의 앞으로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有用할 줄 안다. 公業발전을 위한 자본과 자연자원과 기술의 준비는 勿論 必須條件들이다. 그러나 人間의 價値觀의 準備態勢를 無視할 때 그 發展의 方向은 멀릴 것도 없고 그 速度와 進行過程 自體에 지장이 있음을 간파할 수 없다.⁽⁸⁾

本調査는 이러한 理論的 背景에서 出發하고 있거니와 方法論的 特徵은 무엇인가?

II. 方法論的 特性

1. 行爲豫測要因으로서의 價値觀

從來의 價値觀 研究調査가 平面的으로 個人的 選好志向(preferential orientation)만을 把握하는데 그친 감이 있다는 점을 切感하고 筆者가 參與한 國際比較研究팀에서는 이의 是正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方法을 考案해낸 것이다.

定義上 價値觀이란 選擇的 目的的 行爲의 內面的인 象徴的 要因이다.⁽⁹⁾ 그러나 人間의 行爲은 價値志向대로 直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가지 狀況的 要素가 介入된다는 問題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個人的 選好(preference)만을 가지고 그의 行爲을 豫測하기가

(6) 拙稿, “發展社會學序說” 韓國社會學, 第二輯, 1966. pp. 21—32에서 價値觀과 發展의 問題를 詳論한 바 있다.

(7) 이에 대한 論議는 拙稿 “近代化 過程과 價値觀研究의 課題” 東亞文化, 第六輯, 附錄. pp. 229—238 參照.

(8) Moore. 前掲書, pp. 93—112.

(9) 價値觀의 概念에 관한 論議로는 拙稿 “農村人의 價値觀” 韓國農村社會學研究會編, 農村社會學 (서울: 民潮社, 1965) pp. 250—264. 拙稿 “態度尺度에 의한 儒教價値觀의 測定” 韓國社會學, 第一卷, 1964. pp. 3—24. 및 拙稿, 前掲論文(東亞文化)參照.

어려워진다. 적어도 言語表現的인 水準(verbal level)에서나마 좀더 行動豫測을 容易하게 해 줄 수 있는 價値觀研究方法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個人的 選好 以外에 狀況의 인 要因 두가지를 添付하여 다음과 같은 接近法을 취하기로 했다.

Parsonian 準據들에서 볼 때 人間의 行動體制는 구체적인 體制로서의 퍼스널리티體制(personality system)와 社會體制(social system) 그리고 조금 次元이 다른 體制로서의 文化體制(cultural system)등 세가지로 大別된다.⁽¹⁰⁾ 이러한 準據들에서 볼 때 우리는 個人에게 直接 質問을 하는 方法을 考慮하여 퍼스널리티에 해당하는 것으로 個人的 志向 (personal orientation) 또는 個人的 選好(personal preference)를 물을 수 있다. 文化體制에 相應하는 것으로는 個人이 意識하는 他人의 選好를 묻고 文化的 制裁(cultural sanction)의 意識이라 이름했다. 人間은 自己의 性向이나 欲求에 따라서만 行動하는 것이 아니라 文化的 制裁를 內面化하여 行動하며 또 個人的 性向이 文化를 形成하기도 한다. 따라서 文化的 制裁로 意識되는 他人의 選好가 行동을 決定하는데 作用하는 한가지 要因으로 主要視된다. 다음으로는 個人的 水準에서 우리는 그의 豫測되는 行動을 물어보기로 했다. 이것은 個人的 選好, 文化的 制裁의 相互作用은 勿論 現實的인 社會體制內에서의 制度的인 容易度(Institutional Feasibility)까지도 參酌하여 自己의 實際行動을 豫測하도록 要求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를 豫想行動(Predicted Behavior)이라 불렀다. 그런데 個人的 水準이 아니고 國家나 政府의 水準에서도 우리는 豫想行動을 個人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豫想行動의 경우 問項에 따라 個人的 豫想行動도 묻고 國家나 政府의 豫想行動에 대한 意識(perception)도 묻고 있다. 이것을 圖式的으로 表現하면 다음 圖 1, 圖 2와 같다.

重要한 것은 豫想行動이다. 그런데 豫想行動이 個人的 豫想行動인 경우 그것은 個人的 志向과 文化的 制裁 및 制度的 容易度の 相互作用의 결과라고 하겠지만(圖 1) 國家나 政府의 豫想行動인 경우에 그것은 個人的 志向과는 直接關係가 없고 오히려 制度的 容易度の 反映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圖 2 參照)

2. 分析틀 : 態度群에 의한 分析法

그러면 어떻게 해서 上記 세가지 變數 즉 個人的 志向(Personal Orientation 以下 PO 라 함), 文化的 制裁(Cultural Sanction, 以下 CS 라 함) 및 豫想行動(Predicted Behavior 以下 PB 라 함)에 立脚해서 行動豫測을 하는가? 그 分析틀로서 우리는 態度群(attitude cluster)에 의한 分析法을 採擇하기로 했다.

各問項마다 兩極化(dichotomized) 選擇肢를 주고 理論上 工業發展에 有利하다고 생각되는 選擇肢를 "A" 그 反對의 것을 "B"라 指稱했다. 그리고 PO, CS, PB 의 세次元에서 A와 B의

(10) Talcott Parsons, & Edward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ty Press. 1954).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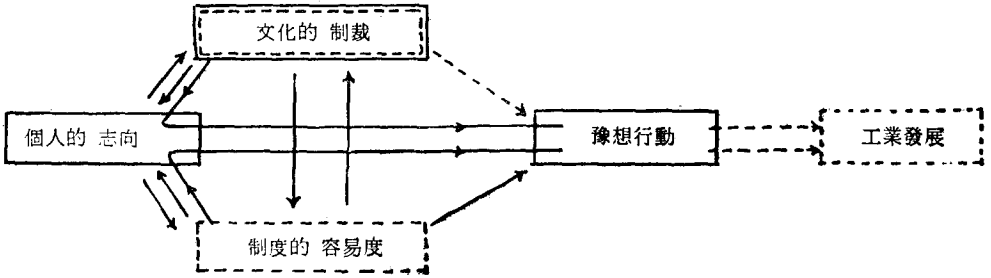


圖 1. 個人的 豫想行動을 물음경우

個人的 志向을 물고 文化的 制裁에 대해서는 그 의식을 물고 制度的 容易度는 직접 묻지 않으나, 個人的 志向, 制度的 容易度 및 文化的 制裁가 相互作用하여 結果的으로 일어날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되는 豫想行動을 묻는다. 그리고 이러한 네가지 要因의 作用으로 公업발전의 방향과 속도가 상당히 좌우될 것이라는 假定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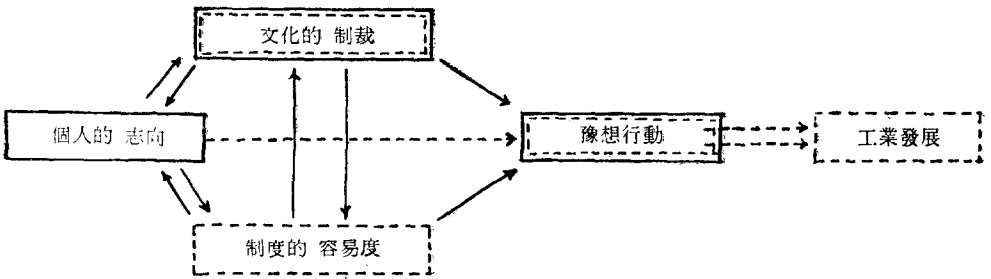


圖 2. 國家나 政府의 豫想行動을 물음경우

個人的 志向은 直接물고 文化的 制裁의 의식을 묻는다. 그리고는 國家나 政府의 豫想行動을 推測하도록 요구하므로 이것은 個人的 志向의 直接反映으로 보기는 어렵고 期待하는 行動(---→표)으로 간주한다. 國家나 政府의 豫想行動은 文化的 制裁와 制度的 容易度 (直接물지 않는 變數이다)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이경우 國家나 政府의 豫想 行動은 곧 制度的 容易度의 直接 反映으로 보는 것이 좋을 지도 모른다. (→)

選擇을 組合으로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은 8 가지 組合을 얻는다.

AAA, ABA; BAA, BBA; AAB, ABB; BAB, BBB;

以上の 8 個組合을 價値觀의 類型으로 再分類하면 다음과 같은 4 가지 價値觀으로 나누어진다.⁽¹¹⁾

(11) 有効的 價値觀과 觀念的 價値觀의 區分은 元來 Kluckhohn, Morris, McLaughlin, 등에서 나온 것인데, 拙稿東亞文化前掲論文 脚註(19)參照. 그리고 여기의 4 個區分은 特히 George W. England, "Personal Values Systems and Expected Behavior of American Managers" Industrial Relations Center, University of Minnesota, March 1967, p. 6 에서 使用한 것임.

1) 有效 價値觀(Operative Values) : 이는 個人的 價値觀念이 行動으로 나타날 有效性이 높은 것을 일컫는데, 上記 態度群에서는 AAA와 ABA 두 組合이 여기에 屬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個人도 그것을 選好하고 文化的으로도 같은 選好가 支配的이라고 생각하며, 實際豫想行動도 그것과 一致한다면(AAA)이는 分明 有效性이 높은 價値觀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文化的 制裁 즉 他人의 選好가 自己와 같지 않다해도 豫想行動이 個人的 志向과 一致하면 (ABA)이도 AAA 처럼 完全하지는 않지만 역시 有効도가 높다고 보겠다.

2) 採用價値觀(Adopted Values) : 이것은 狀況的 乃至 制度的으로 誘導된 價値觀(Situationally or Institutionally Induced Values)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個人은 꼭 그것을 選好하지 않지만 社會的 狀況에 의하여 制度上으로 實際行動化할 可能性이 높은 價値觀이다. 態度群에서는 BAA와 BBA가 이에 該當한다고 하겠다.

3) 觀念的 價値觀(Conceived Values) : 이것은 社會文化的으로 誘導된 價値觀(Socio-culturally Induced Values)으로 別稱할 수 있는 것으로 그 社會의 文化的 價値觀念에서 個人이 觀念的으로 選好하는 것이지만 狀況的인 與件이나 制度面에서 制約이 있어 實際 行動으로 有效하게 나타날 確率이 적은 價値觀이다. AAB와 ABB 態度群을 여기에 分類하면 좋을 것 같다.

4) 行動有關性이 낮은 價値觀(Values of Low Behavioral Relevance) : 이것은 觀念的으로나 制度上으로 別로 重要視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實際 行動으로 나타날 有效性이 낮은 價値觀이다. BAB와 BBB가 여기에 屬할 것이다.

以上の 四大分類는 本來 다른 研究에서 全然 다른 脈絡에서 採用한 것이므로 完全히 우리의 態度群이 適合하게 分類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後에 資料를 검토할 때 言及되겠지만 상당히 有用한 分類임에는 틀림 없다.

Ⅲ. 調查結果報告

1. 調查內容

本來 國際比較研究에서는 30個項目을 취급하고 있지만 本稿에서는 그것을 全部 다룰 수 는 없고 마지막 部分의 10個 項目만을 가지고 결과보고를 하겠다. 그 10個項目을 크게 세 부분으로 다시 나누면 (1) 國家意識을 다루는 問項 3個 (2) 政府의 經濟政策에 관한 태도를 다루는 問項 5個 및 (3) 傳統과 새로운 것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2個問項으로 區分된다. 자세한 內容은 資料를 提示하면서 해설하겠다.

2. 調查對象

本稿는 우선 前記國際比較研究를 위한 事前調查資料에다 筆者가 행한 追加조사자료를 합해서 나온 것이다. 本來 국제연구팀에서는 實際 工業部門에 종사하는 中間管理者層과 現場

勞務者層만을 對象으로 定한 것인데 筆者는 韓國의 경우 中間公務員과 大學生의 두 集團을 첨가한 것이다. 特히 國家意識이나 政府의 政策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直接 工業에 종사하는 관리자나 노동자 말고도 政策決定과 施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經濟各部處의 中間官吏와 壓力集團으로서의 大學生을 包含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았기때문이다.

紙面關係로 자세한 자료는 省略하고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性格을 概略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公務員은 經濟企劃院, 財務部, 商工部, 建設部, 農林部 및 勞動廳의 局課長級 76 名과 係長 3 名 都合 79 名으로 1966 年 10 月~11 月に 面接調査했다.

2) 管理者는 利川電機, 大韓紡績 東洋미싱 朝興化學 및 京城紡績에서 部課長 55 名을 選定 郵便質問法과 面接을 併行 1966 年 10 月~11 月に 조사했다.

3) 勞動者는 朝興化學을 除外한 上記 4 個工場의 現場勞務者 男子 67 名 女子 41 名 都合 108 名을 標本抽出, 集團面接과 個別面接을 併用 同時期에 조사했다.

4) 大學生은 서울大 文理大 法大 工大에서 文理科 男子 各 40 名씩 서울女大와 梨大에서 文理科 女子 各 20 名씩을 各學年 男子 10 名씩 女子 5 名씩으로 配當都合 120 名을 選定하여 直接記入法으로 同時期에 調査하였다. 標本抽出은 大體로 有意的인 것이었다.

以上の 조사대상자의 一般的 性格에 관한 자료는 下記 表 1~4 를 參酌하고 解說은 略한다.

表 1. 調査對象者의 年齡(大學生除外)

年 齡	集 團			年 齡	集 團		
	公 務 員	管 理 者	勞 動 者		公 務 員	管 理 者	勞 動 者
15歲 未 滿	—	—	1	35 ~39	30	12	11
15歲~19歲	—	—	14	40 ~44	27	18	4
20 ~24	—	—	36	45 ~49	10	9	5
25 ~29	2	1	23	50 ~54	1	3	—
30 ~34	9	12	14	計	79	55	108

表 2. 教育程度(大學生除外)

教育年數	集 團			教育年數	集 團		
	公 務 員	管 理 者	勞 動 者		公 務 員	管 理 者	勞 動 者
5年以下	—	1	2	13 ~ 16	48	24	12
6年	1	3	25	17 ~	27	8	2
7 ~ 9	1	7	33	不 明			2
10 ~ 12	2	12	34	計	79	55	108

表 3. 生 長 地

生 長 地	集 團			
	公 務 員	管 理 者	勞 動 者	大 學 生
都 市	55	39	61	100
邑	9	7	22	14
촌 락	15	9	25	6
計	79	55	108	120

表 4. 宗 教

宗 教	集 團			
	公 務 員	管 理 者	勞 動 者	大 學 生
基 督 教 改 新 教	11	9	24	44
天 主 教	7	4	9	8
佛 教	7	5	16	5
其 他	2	2	7	1
無 宗 教	52	34	44	62
不 明	—	1	8	—
計	79	55	108	120

3. 調 查 結 果 : 解 說

1) 國 家 에 대 한 歸 屬 意 識

後進國일수록 近代의 國家觀이 희박하고 國家라는 空間의 概念이 약하다는 것이 定說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은 比較的 問題가 덜 되는 것 같다. 오히려 國家의 利益을 自己의 個人的 利益이나 特定集團의 利益보다 더 重要視하느냐 하는 問題나 國家에 대하여 얼마나 強한 歸屬意識을 지니고 있는나가 더 問題이다. 民族主義 云云하지만 事實상 日政時의 感情的인 民族主義는 解放後 具體的인 攻擊의 的을 잃었고 그後 潮水처럼 밀려든 自由 民主主義는 個人的인 利益을 國家利益에 앞세우는 自己中心的인 個人主義를 急速히 發展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狀況에서 政府가 祖國近代化를 부르짖고 나설 때 國民들은 얼마만한 國家에 대한 애착심이나 歸屬의식을 가지고 이에 응할 것인가는 상당히 問題이다. 이와 같은 國家에 대한 귀속의식을 알아보는 한가지 方法으로서 다음과 같은 質問을 던져보았다.

問22.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기회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 그 기회를 거부하고 한국에 그대로 산다.

B. 그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을 떠난다.

- | |
|--|
| <p>(1) 위의 두가지 중에 귀하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A— B—</p> <p>(2)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A— B—</p> <p>(3) 실지로 귀하는 어떻게 하실 가능성이 더 큼니까? A— B—</p> |
|--|

여기서 A와 B는 兩極化選擇肢로서 A를 국가귀속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업발전에는 有利한 경향이라 가정한다. 네모속에 3個 질문이 있는데 (1)은 PO(개인적 지향) (2)는 CS(文化적 제재) (3)은 PB(豫想行動)를 각각 묻기 위한 것이다. 表5는 이에 대한 態度群과 PO, CS, PB 別로 나타낸 것이다. 態度群에서 OV는 有効 價値觀(operative values) AV는 採用價値觀(adopted values) CV는 觀念的 價値觀(conceived values) LB는 行動有關性이 낮은 價値觀의 略字이다.

表 5. 國家에 대한 歸屬意識(%)

對象集團 態度群	公務員	管理者	勞務者	大學生
AAA } OV	43.0	40.0	22.2	15.0
ABA } OV	34.2	30.9	22.2	35.0
BAA } AV	1.3	—	3.7	0.8
BBA } AV	2.5	14.5	8.3	5.8
AAB } CV	2.5	—	3.7	5.8
ABB } CV	2.5	—	2.9	14.2
BAB } LB	1.3	3.6	3.7	4.2
BBB } LB	7.7	10.9	32.4	19.2
無 應 答	5.1	—	0.9	—
計	100.1	99.9	100.0	100.0
(態度次元)				
個人的志向(A)	84.8	71	56	67.5
文化的制被(A)	49.4	44	35	26.7
個人的豫想行動(A)	82.2	84	55	56.7

먼저 表의 上半部를 보면 態度群에 의한 行動豫測을 할 수가 있겠는데 大體로 公務員과 管理者에 있어서 7割以上이 OV 즉 有効 價値觀의 所有者로 他國의 市民이 될 기회를 거부하고 本國에 머물러 있겠다는 사람들이다. 이에 反해서 勞務者層은 OV 44.4% LB 36.1%로 거의 생각이 갈리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으며 大學生들도 相對的으로 OV의 比率이 크다고 하지만 CV와 LB에 20%, 23.4%씩이나 물려있는 것은 注目할 만하다. 다시 말해서 公務員과 管理者들은 勞務者나 大學生보다 國家에의 歸屬意識이 좀더 強한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 事實은 表의 下半部 態度次元에 의한 分析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어째서 勞務者和 大學生中에 이나라를 떠날 수만 있다면 떠나고자 하는사람이 比較的 다른 두 集團보다 많을까? 과연 이것으로 國家歸屬意識이 낮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는가? 萬一 그렇다면 왜 그런가? 이런 問題는 좀더 深刻하게 생각해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한가지 推測을 한다면 年齡의으로 보아 勞務者和 大學生은 거의 다 20代青年이요 이 社會에서 아직 安定된 社會經濟的 位置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이다.

또 한가지 指摘해둘 것은 態度次元의分析에서 文化的 制裁는 個人的 志向이나 豫想行動과 상당한 差異로 反對 傾向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自己는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고 또 그렇게 하겠지만 남들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말이다. 이는 우선 方法的으로 文化的 制裁가 요즘 사회에서 充分히 制裁의 役割을 못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대개 個人的생각은 보다 理想的인 것인데 反해서 他人에게다는 보다 現實的인 것을 投射시키는 心理的인 傾向을 엿보게 한다.

大體로 보아 국가귀속의식은 낮은 편이 아니다.

2) 政府指導者像

工業化發展을 이끌어가는 政府指導者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인가? 그들의 성격에 따라 국민의 呼應도 左右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問28. 정부지도자들의 생각에 자기네들 하는 일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믿는 것도 때로는 국민의 의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때 정부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A. 자기들 생각에 옳다고 믿는대로 해나간다.
- B. 국민들이 원하는데로 해나간다.

(1) 귀하는 어떤행동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A—— B——
(2)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어떤 행동을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A—— B——
(3) 우리 정부지도자들은 실지로 어떤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더 큼니까?	A—— B——

※ (여기서는 질문 (3)이 정부 지도자들의 예상 행동으로 되어 있음을 注目하기 바란다.)

表 6은 問 28에 대한 대담을 정리한 결과이다. 態度群分析에서 보면 노동자를 제외한 3個集團은 OV에서 4割 가량모이고 다음 AV와 LB가 집단에 따라 다르긴하나 3割가량씩을 얻고 있다. 換言하면 노동자들은 정부지도자들의 信念에 의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아주 顯著하고 비록 좋아한다해도 그것은 採用된 價値觀으로 自己속에 內在化된 것이 아니다. 管理者와 大學生의 경우에는 약 4割以上이 信念위에 움직이는 지도자를 원하면서도 사실상 內在化되지 않은 採用價値觀(AV)역시 약 4割을 차지한다. 오히려 공무원들은 정부지도자들이 국민의 뜻에 쫓는게 좋겠다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注目할만 하다.

態度次元으로 볼 때 여기서도 역시 文化的 制裁는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個人的 選好와 크게 격차를 보인다.

重要한 事實은 個人的으로 비록 信念에서 움직이는 지도자가 좋게 보이는 경향이 약간 있고 特히 大學生은 過半數가 되지만(54%PO) 一般의 생각이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는 判斷이 아주 支配的이고 그 反面에 실지로 우리의 지도자들은 어느편인가 하면 국민의 의사를 無視하고라도 自己네 생각대로 움직여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壓倒的이라는 것이다. 特히 公務員

表 6. 政府指導者像(%)

對象集團 態度群	公務員	管理者	勞動者	大學生
AAA } OV	13.9	10.9	6.5	6.7
ABA } OV	24.0	29.1	16.7	32.5
BAA } AV	—	—	2.8	3.5
BBA } AV	19.0	38.2	29.6	32.5
AAB } CV	5.1	1.8	2.8	5.0
ABB } CV	2.5	3.6	—	10.8
BAB } LB	—	—	9.3	1.7
BBB } LB	30.4	16.4	32.4	7.5
無 應 答	5.1	—	—	—
計	100.0	100.0	100.1	100.0
(態度次元)				
個人的志向(A)	45.5	45	26	54.2
文化的制裁(A)	16.5	29	20	15.0
豫想된指導者行動(A)	57.0	78	56	74.2

을 除外한 세집단의 경우 BBA 즉 나도 원치않고, 남들도 다 원치 않는데, 우리네 지도자들은 自己네 맘대로 할 것이라는 짐작에 3割内外가 集中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과연 얼마나 信賴를 받고 있는가 하는점에 약간의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의 지도자상과 현재지도자들의 행위양식에 격차가 있을 때 信任도가 문제되고 信임도가 문제되면 公業발전을 위한 動員에서 同調협력력을 얻는데 난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을가?

3) 工業發展을 위한 個人的 犧牲의 要求에 대한 反應

國家意識을 알아내는 다른 한 方法은 國家的인 工業發展을 위해서 政府가 個人的 봉급이나 임금에 대한 統制를 하는 것이 좋은지 정부는 임금이나 봉급에 대해서 아예 손도 대지 않는 것이 좋은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問23以下 질문소개는 省略함) 屢 간접적인 길이지만 個人的 生活과 관련이 있는 임금과 봉급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어느정도 인정하느냐 하는 것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협력할 용의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에 대한 信賴感도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表 7에 의하면 우선 이 문제에 가장 銳敏한 反應을 보이는 集團이 管理者層임을 알 수 있다. 40%가 우선 LB 범주에 歸屬하고 있으며 정부가 임금이나 봉급을 통제하는 것에 反對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 다음 勞動者들은 50%가 OV에 속하고 6割 정도가 정부의 통제에 찬의를 표하긴 하나 24%가 LB에 속하여 상당한 反對의사도 표명되고 있다. 大學生과 公務員은 비교적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편이기는 하나 그리 대단한

表 7. 國家의 工業發展을 위한 個人犧牲用意(%)

對象集團 態度群	公務員	管理者	勞働者	大學生
AAA } OV	27.8	14.5	34.3	19.2
ABA } OV	20.2	16.4	15.7	21.7
BAA } AV	2.5	1.8	0.9	0.8
BBA } AV	15.2	12.7	11.2	20.8
AAB } CV	3.8	7.3	8.3	4.2
ABB } CV	3.8	3.6	4.6	14.2
BAB } LB	—	3.6	0.9	1.7
BBB } LB	22.8	40.0	24.1	15.0
無 應 答	3.8	—	—	2.5
計	99.9	99.9	100.0	100.1
(態度次元)				
個人的志向(A)	59.5	42	63	57.5
文化的制裁(A)	34.2	27	45	25.0
豫想된 정부行動(A)	69.6	44	61	52.5

경향은 아니고 대체로 中立이다.

여기서도 注目할 점은 文化的 制裁의 의식은 個人的 意向이나 실지 豫상행동과 反對方向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그런 일에 간섭하여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는 관념이 상당히 강하다. 綜合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勞働者層을 除外하면 大部分의 사람들이 국가의 공업발전을 위한 個人的 희생을 달갑게 받으려는 용의가 적다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은 실제 여러가지 국민저축이나 민간투자면에서 나타나는 現象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른 角度에서 보면 정부가 이런 희생을 요구해야 할 경우 우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부의 신임과 動員力의 문제에 대한 再考까지도 要求하게 된다.

4) 기간산업의 政府統制에 대한 態度

지금까지는 直接 정부지도자像 國家귀속의식 국가에 대한 협력용의를 다루었지만 이제부터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련된 태도를 취급하면서 정부에 대한 信任度라든가 기타 有關한 側面을 다루어보겠다.

그 한 보기는 석탄이나 강철같은 기간산업을 정부가 소유운영하는게 좋은지 사기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은지를 물어보는 질문(問24)이다.

民間企業의 自生的이고 合理的 자본축적이 어려운 발전초기에 있어서 정부가 기간산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취하는 기본방침인 것 같다. 그러나 요즘 차차 民間企業이

表 8. 基幹産業의 政府所有運營에 대한 태도

對象集團 態度群	公務員	管理者	勞動者	大學生
AAA } OV	34.2	20.0	27.8	37.5
ABA } OV	8.8	1.8	13.9	13.3
BAA } AV	7.7	7.3	4.6	5.8
BBA } AV	16.4	23.6	12.0	15.8
AAB } CV	6.3	9.1	14.8	10.8
ABB } CV	3.8	1.8	8.3	1.7
BAB } LB	2.5	3.6	2.8	2.5
BBB } LB	17.7	32.7	14.8	10.0
無 應 答	2.5	—	0.9	2.5
計	99.9	99.9	99.9	99.9
(態度次元) 個人的志向(A)	54.4	33	64	64.2
文化的制裁(A)	49.3	40	51	55.8
豫想된정부의行動(A)	68.3	51	58	74.2

膨大하고 國營企業體의 經營不合理가 問題되면서 民營化의 기운이 싹트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국민에게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아직은 중앙정부가 기간산업을 통제하는 것이 공업화발전계획으로서 유리하다는 假定아래 表8을 검토해보자.

이 문제에 있어서도 管理者들은 銳敏한 反應을 보여 中央集權的 統制를 反對하는 뚜렷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에 反해서 大學生과 勞動者는 過半數 以上이 찬성의사를 표명하고 나서고 있으며 公務員들은 比較的 中立을 지키는 것 같다.

여기서 注目할만한 자료는 노동자와 관리자의 태도次元上的 應答類型이 正反對라는 점과 大學生의 중앙집권적통제지지 현상이다. 관리자의 경우 33%가 기간산업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찬성하는 한편 51%가 정부는 실지로 통제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데 反해서 노동자의 경우 그들의 개인의사로는 정부가 소유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64%인데 실지 정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에서는 58%로 줄어들고 있어 노동자의 기업체에 대한 不滿과 관리자의 정부에 대한 不滿이 相反된 채 나타나는 것 같다. 大學生의 경우 상당히 정부소유운영에 지지를 보이는 것은 정부에 대한 信任이 크다고 보기보다는 私企業에 대한 더 강한 不信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지나친 臆測일까?

5) 私企業에 대한 政府補助에 관한 태도

발전초기에 있어서 私企業活動은 여러가지 난관이 있다. 특히 자본부족의 곤란이다. 이런 경우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은 대단히 긴요한 일이다. 그래서 공업발전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한가지 길로서 기간산업계의 大會社가 破産危機에 있을 때 정

表 9. 私企業에 대한 政府보조에 관한 態度(%)

對象集團		公務員	管理者	勞働者	大學生
態度群					
AAA	OV	78.5	56.7	51.8	45.0
ABA		7.7	3.6	5.6	6.7
BAA	AV	2.5	1.8	2.8	2.5
BBA		6.3	1.8	0.9	—
AAB	CV	—	32.7	31.5	32.5
ABB		1.3	3.6	1.9	4.2
BAB	LB	1.3	—	2.8	4.2
BBB		2.5	—	1.9	5.0
無 應 答		—	—	0.9	—
計		100.1	100.2	100.1	100.1
(態度次元)					
個人的志向(A)		95.0	96	92	88.3
文化的制裁(A)		88.6	89	91	84.2
豫想된정부行動(A)		89.9	65	62	53.3

부는 가능한 補助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모른체하고 회사 自體가 最善을 다 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를 물어보았다.(問25)

表 9에서 볼 수 있듯이 9割内外의 응답자가 정부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公務員을 除外한 三個集團은 共通的으로 정부는 自己나 국민一般이 원하는 만큼 보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態度群에 있어서 관리자, 노동자, 大學生이 CV에 각각 32.7%, 31.5%, 32.5%를 보이고, 態度次元에 있어서도 PB가 65%, 62%, 53.3%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明白하다.

6) 政經分離外交政策에 대한 태도

政府가 樹立施行할 경제정책에 있어서 強調點이 있을 수가 있다. 이제부터 그러한 강조점에 대한 태도를 취급하겠거니와 우선 政經分離外交政策이 그 하나이다. 이 문제는 實地로 우리나라에서 現實的인 論議의 對象이 안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대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러한 原則위에 外交를 넓히는 것이 有利하다는 一般的인 의견을 전제로 共產國家與否를 莫論하고 交易을 하는 것이 어떠한 질문을 던져보았다.(問27)

表10을 볼 때 우선 態度群으로 分析하면 大學生을 除外한 三個集團의 경우 LB번주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어 政經分離원칙이 行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함을 잘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集團에서는 CV 즉 行動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적지만 적어도 觀念的인 수준에서는 원칙적인 찬성을 보이는 범주에 상당수가 모여

表 10. 政經分離外交政策에 대한 태도(%)

對集象團 態度群	公務員	管理者	勞働者	大學生
AAA } OV	3.8	3.6	18.5	5.8
ABA } OV	1.3	—	1.9	4.2
BAA } AV	1.3	3.6	5.6	4.2
BBA } AV	1.3	1.8	7.3	7.5
AAB } CV	7.7	16.4	13.9	25.0
ABB } CV	6.3	14.5	7.4	22.5
BAB } LB	5.1	10.9	2.8	4.2
BBB } LB	69.5	49.1	42.6	26.7
無 應 答	3.8	—	—	—
計	100.1	99.9	100.0	100.1
(態度次元)				
個人的志向(A)	19.0	35	43	57.5
文化的制裁(A)	17.7	35	41	47.5
豫想된國家行動(A)	7.6	25	36	20.8

있다는 사실이다. 特記할 것은 主로 大學生이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CV에 47.5%) 다음으로는 勞働者의 경우 20%가 OV 범주에 속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어느정도 현실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만큼 의미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한가지 注意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단적으로 共產主義의 것으로 速斷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一般的으로 個人的志向보다는 文化的制裁의 比率이 낮고 또 이 兩者보다 實際 國家政策의 豫測이 正경분리를 따를 가능성이 더 적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비록 개인적인 次元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正경분리를 하는 것이 有利하다고 생각하더라도 實際性이 희박하다는 現實인식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7) 工業發展과 社會福祉事業開發의 相對的 重要性

國家發展이 工業發展과 同一視되어야 한다는 法이 없지만 궁극에 가서는 온 社會가 生活水準이 向上된 福祉社會로 指向한다는 것은 事實이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社會厚生事業이 없이 경제발전이 順調롭지 못하다는 것도 指摘되는 바이다. 그러나 발전초기에 있어서 制限된 資源을 가지고 適切히 配當해야 하는 社會에서는 어차피 어느 한쪽에다 重點을 두고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공장, 철도, 댐, 항만등의 개발과 사회복지사업, 병원, 주택의 개발과 어느 쪽에 重點을 두어야 할까를 물어보았다. (問21)

大體로 表 11에서 보듯이 工業發展의 相對的 重要性을 認定하는 경향이 크다. 特히 公務員과 管理者들은 월등 높은 比率을 보이고 노동자층이 가장 낮은 찬성비율을 보인다. 이유

表 11. 工業發展事業과 社會福祉事業의 相對的 重要性(%)

對象集團		公務員	管理者	勞働者	大學生
態度群					
AAA } OV		53.1	34.5	35.2	39.2
ABA } OV		35.4	47.3	21.3	26.7
BAA } AV		1.3	—	1.8	6.7
BBA } AV		5.5	5.5	5.5	10.0
AAB } CV		2.5	4.9	11.1	5.0
ABB } CV		—	6.7	1.9	5.0
BAB } LB		2.5	7.1	5.6	3.3
BBB } LB		3.8	18.5	15.7	3.3
無 應 答		—	—	1.9	0.8
計		—	—	—	—
(態度次元)					
個人的志向(A)		92.4	89	68	75.8
文化的制裁(A)		59.5	38	55	50.8
豫想된國家行動(A)		92.4	87	65	83.3

는 노동자들이 노조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生活的 위험을 사회복지 사업 같은 것으로 메꿀 가능성에 대한 의식이 자극된 까닭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態度次元으로 볼 때 文化的 制裁가 個人的 志向이나 豫想行動보다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自己들은 공업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一般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특히 管理者層에서 뚜렷한 차이(50%)가 보인다.

8) 工業과 農業의 相對的 重要性

農業國의 傳統을 오랫동안 脫皮하지 못하던 後進諸國의 工業化努力은 無視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問題는 先進諸國의 밝은 過程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못한다는 고민이 있다. 工과 農의 均衡있는 發展이 緊要한 것만은 사실이나 그것이 말처럼 쉽사리 이룩될 性質의 것이 아니기때문에 고민은 더욱 크다. 하여간 현재로 봐서는 공업에 우선적인 비중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두가지의 비중을 물어보았다. (問29)

一般的으로 工業의 重要性은 응답자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역시 관리자층과 공무원들이 다른 두 集團보다는 약간 더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비율이 낮다. 이들은 현재 공업에 종사하기는 하나 농촌출신이 많은 集團이고 보면 농촌의 발전을 직접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며, 大學生의 경우에는 一種의 이념적인 동정 같은 것이 보여진 게 아닌가 짐작된다.

態度次元에 있어서 다른 間項보다는 文化的 制裁가 그리 낮은편이 아니다. 흥미있는 차이

表 12. 工業과 農業의 相對的 重要性(%)

對象集團	公務員	管理者	勞働者	大學生
態度群				
AAA } OV	59.5	58.2	45.4	47.5
ABA } OV	17.7	14.5	14.8	13.3
BAA } AV	3.8	3.6	9.3	6.7
BBA } AV	6.3	—	6.4	5.8
AAB } CV	1.3	7.3	2.7	11.7
BBA } CV	2.5	3.6	5.6	6.7
BAB } LB	1.3	—	5.6	6.8
BBB } LB	3.8	1.8	9.3	6.7
無 應 答	3.8	—	0.9	0.8
計	100.0	100.0	100.0	100.0
(態度次元)				
個人的志向(A)	84.8	91	72	78.3
文化的制裁(A)	62.1	71	65	68.3
豫想된國家行動(A)	88.6	76	72	74.2

는 관리자층의 경우 個人的 志向에서 工業重視는 91%에 해당하는데 文化的 制裁와 예상 정 부행동은 오히려 20% 정도 낮아서 그들의 不滿을 은근히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大體로 공업의 비중은 크게 인정되고 있는 듯 하다.

9) 外國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受容하는 태도

後進國의 경우 自國의 自發的인 發明革新보다는 이미 先進國에서 發展시킨 技術을 輸入하는 것이 有利한 點의 하나이다. 따라서 外國에 대한 開放的 態도와 가능하면 새로운 文物을 많이 受容하려는 태도는 必要하다.

하기야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들여오느냐 하는 技術的인 諸問題가 있고 또 外國으로부터 被動的으로 輸入해오는 것이 過剩됨으로써 副作用 또한 없지 않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開放的인 태도는 有利하다고 보아 새로운 것을 되도록 많이 받아 들여야 한다고 보는지 되도록 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보는지를 물어 보았다. (問30)

全體的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받아들이자는 의견에 集中되고 있음을 表 13에서 보아 알 수 있다. 集團間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管理者가 가장 높고 公務員이 그 다음이며 大學生과 勞働者는 前記 二集團보다 비교적 낮은 비율의 찬성태도가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外國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폐쇄적인 경향은 비교적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外國의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잘 利用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宿題꺼리가 아닌가 한다.

10) 傳統에 대한 態度

表 13. 外國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受容하는 態度(%)

對象集團		公務員	管理者	勞動者	大學生
態度群					
AAA } OV		72.0	81.8	65.6	60.0
ABA } OV		12.7	1.8	3.1	10.0
BAA } AV		—	3.6	4.3	10.8
BBA } AV		1.3	—	1.8	0.8
AAB } CV		—	7.3	9.8	7.5
ABB } CV		1.3	3.6	3.1	1.7
BAB } LB		—	—	3.1	3.3
BBB } LB		6.3	1.8	9.2	4.2
無 應 答		6.3	—	—	1.7
計		99.9	99.9	100.0	100.0
(態度次元)					
個人的志向(A)		87.4	93	74	78.3
文化的制裁(A)		72.1	93	78	80.8
豫想國家行動(A)		86.0	85	68	80.8

近代化에 있어서 傳統의 役割에 대한 論議는 社會마다 그 功過가 다르므로 一律的인 結論에 到達하기 어렵다. 어떤 傳統이 어떤 形式으로 工業化나 經濟發展에 作用하는지는 그 社會의 歷史的 特殊性과 指導者의 能力에 따라 크게 左右되기 때문이다.

表 14. 傳統에 대한 態度(%)

對象集團		公務員	管理者	勞動者	大學生
態度群					
AAA } OV		24.0	21.8	25.0	10.8
ABA } OV		11.4	23.6	18.5	15.8
BAA } AV		5.1	9.1	3.7	3.3
BBA } AV		5.1	3.6	3.7	12.5
AAB } CV		—	5.5	8.3	7.5
ABB } CV		13.9	5.5	6.5	15.0
BAB } LB		1.3	5.5	7.4	10.8
BBB } LB		30.4	25.5	26.9	22.5
無 應 答		8.8	—	—	1.7
計		100.0	100.1	100.0	99.9
(態度次元)					
個人的志向(A)		50.6	58	58	47.5
文化的制裁(A)		29.1	40	44	34.2
豫想國家行動(A)		45.5	58	51	42.5

그러나 基本的인 假定의 하나는 韓國社會같은 後進國에서는 傳統이 一般的으로 工業發展에 寄與하기보다는 阻害하는 要因으로 作用한 例가 많으므로 傳統은 되도록 버리는 方向이 初期에는 有利하다는 結論이다. 그래서 전통적 관습과 관념을 되도록 버리는게 좋은지 되도록 간직해야 하는가를 물어 보았다.(問26)

表 14에 의하면 傳統을 버리라는 의견과 간직하라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다. 사실 質問 自體가 너무 一般的이어서 전통중에는 버릴 것도 있고 간직할 것도 있다는 주석이 붙어나오긴 하지만 그런대로 일반적인 경향만 보아도 태도가 갈리는 것은 역시 傳統을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거나 아니면 구태어 버리지 않으려는 경향이거나 어느편이든간에 傳統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外國文物의 영향이 너무 커서 차라서 傳統이 너무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생각이 좀더 강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중에도 흥미 있는 현상은 大學生층이 傳統의 보존에 찬성하는 경향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傳統에 구애되려는 태도라기보다는 傳統을 보존하려는 주체의식으로 보는 것이 좋을 지도 모른다.

IV. 要約과 討論

지금까지 項目別로 응답유형을 검토해왔다. 이것을 좀더 한눈에 쉽게 파악하고 또 行動으

表 15. 要約表(괄호내 수는 %)

態 度 內 容	集 團									
	公務員		管理者		勞 働 者			大學生		
國 家 的 屬 意 識	OV (77)		OV (71)		OV (44)	LB (36)		OV (50)	LB (23)	CV (20)
信念에서 움직이는 指 導 者 觀	OV (38)	LB (30)	OV (40)	AV (38)	LB (42)	AV (32)	OV (23)	OV (39)	AV (36)	
工業發展을 위한 個人의 生 活 要 求	OV (48)	LB (23)	LB (40)	OV (31)	OV (50)	LB (25)		OV (41)	AV (22)	
基幹産業의 國有 國營	OV (43)	AV (24)	LB (20)	LB (36)	AV (31)	OV (22)	OV (42)	CV (23)	OV (51)	VA (22)
私企業에 대한 政府 補 助	OV (86)		OV (60)	CV (36)	OV (57)	CV (33)		OV (52)	CV (37)	
政 經 分 離 外 交	LB (75)		LB (60)	CV (31)	LB (45)	CV (21)	OV (20)	CV (48)	LB (31)	
工業發展對社會福 祉	OV (88)		OV (82)	LB (26)	OV (56)	LB (21)		OV (66)		
工 業 對 農 業	OV (77)		OV (73)		OV (60)			OV (61)		
外 國 文 物 輸 入	OV (58)		OV (84)		OV (69)			OV (70)		
傳 統 的 價 值	OV (35)	LB (32)	OV (45)	LB (31)	OV (44)	LB (34)		LB (33)	LB (27)	CV (22)

로 나타날 確率을 價値類型에 의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上記와 같은 要約表을 만들었다. (表 15 參照) 要約表에 의하여 이번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 國家歸屬意識이 뚜렷한 行動的 有効性을 갖는 集團은 公務員과 管理者層이며 勞働者層은 態度가 有効 價値觀과 行動有關性이 낮은 가치관으로 거의 兩分되는 경향마저 보여, 귀속의식이 희박함을 알 수 있고 大學生은 귀속의식이 좀 있기는 하나 비교적 관념적인 것이지 行動的 有効性은 높은 편이 못된다.

(2) 信念에 의하여 움직이는 指導者觀은 全般的으로 有効性이 높은 것 같지 않고 大概가 自己는 원치 않지만 制度的으로 誘導된 採用價値觀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특히 노동자층은 그러한 지도자를 원치 않는 경향이 많다.

(3) 국가가 공업발전을 위한 個人的 희생의 요구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 특히 관리자는 이에 反對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경향이 더크다.

(4) 기간산업의 국영화도 일반적으로 지지는 하나 적극적인 것 같지 않으며 관리자층은 이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5) 私企業에 대한 정부보조는 公務員과 管理者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가능성으로 볼 때 관리자는 조금 소극적이고 관념적인 듯 하다. 다른 두 集團도 필요성을 강조는 하나 비교적 관념적이다.

(6) 政經分離外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反對하고 관리자는 반대하는 경향이 크지만 관념적으로는 비교적 찬성을 보이고 있는데, 노동자는 반대와 관념적 찬성이 兩立하며, 대학생의 경우 관념적인 水準에서는 정경분리외교에 찬성하는 경향이 反對경향보다 강하다.

(7) 社會福祉事業이나 農業發展보다 工業發展이 時急하다는 생각은 全般的으로 實効性이 높은 價値觀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노동자들이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조금 두드러진다.

(8) 外國의 文物을 受容하는데 대해서는 모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전통의 폐기에 대해서는 大體로 贊反이 兩立한다. 다만 大學生에게서 전통보존의 경향을 좀더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9) 끝으로 全般的인 要約을 한다면 政經分離外交라는 現實性이 거의 없는 정책을 除外한 工業化政策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一般的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경제발전도상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아니나 지지를 보내는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에서는 젊은층이 특히 낮은 것 같고 지도자의 신념있는

행동에 대한 신뢰정도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綜合하면 우리의 公務員이나 管理者, 勞動者등 직접 공업발전에 종사관여하는 층의 사람들과 하나의 壓力集團인 知性人으로서의 大學生들은 공업발전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은 적극 지지하는 경향이지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나아가서 정부지도자들에 대한 信賴感이 비교적 희박하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공업발전을 위한 “준비태세”라는 側面에서 볼 때 국민들은 어느정도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만 정부의 역할을 그다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靑年層인 노동자와 大學生들은 국가귀속의식이 약하므로 정부가 공업화임국을 주장하고 밀고 나갈 때 과연 얼마만큼이나 國民들의 갖추어진 “準備態勢”를 有效하게 動員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약간의 의문을 갖게 한다.

(10) 특히 方法論的으로 注目할 價値가 있는 점은 몇몇 項目을 除外하고는 大部分의 問項에서 他人의 選好에 대한 의식이 응답자 自己個人的 選好나 實際豫想行動과 反對의 方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換言하면 우리가 分析的으로 文化的 制裁라고 認定한 바 있는 他人의 選好나 志向은 個人的 志向이나 豫想行動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뿐 아니라 그것이 대체로 이 兩者와 相反되는 경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말은 여러가지로 해석되겠지만 첫째로는 文化的 制裁가 이미 어떤 制裁力을 喪失하고 있다는 現今의 社會的 狀況을 反映해주는 現象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社會變動이 급격한 시기에 있어서 文化的 規範은 制裁力이 박약해지게 마련이라는 一般理論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로 人間心理를 推測할 때 他人의 생각은 대개 現實性에 가까운 것임을 判斷하고 自己의 생각을 보다 理想化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自己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나 남들이 그러리라는 은근한 自己理想化의 경향이다.

그러나 무슨 까닭이든간에 他人의 생각이나 選好와 自己의 選好志向 및 豫想行動이 서로 差異가 난다는 것은 이 社會에 同意(consensus)의 程度가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 역시 앞으로의 社會的 動員에 과연 얼마나 有利한 것일지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主要集團들은 대체로 공업화의 준비가 정신적으로는 되어 있는 편이나 이것이 정부에 의한 공업화정책일 때 적극적인 同調를 나타낼 準備態勢까지는 包含하는 것 같지 않다는 잠정적인 結論을 가지고 이 方面에 關與하는 當局者나 學者들의 再考를 促求하고 싶다.

Eisenstadt가 持續的 成長의 崩壞要因의 하나로서 國家가 社會의 諸力을 動員하는데 失敗하는 것이라고 指摘하듯이 우리의 持續的인 工業發展을 위해서는 적어도 國民(社會)의 動員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부(國家)가 되는 것이 緊要한 條件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기야 이 調査는 어디까지나 代表性을 主張할만큼 大規模조사도 아니고 하나의 事前調査인만큼 速斷을 내릴 성질의 것이 못됨은 自認한다. 다만 이러한 方法을 가지고 이러한 問題를 다룰 수 있다는 하나의 方法的인 示唆과 더불어 이번 결과가 어떤 형태이든 관계자들에게 자극이 되었으면 足하리라고 여겨진다.